



11월 Raonatti in Viet Nam

성장 ○○

9월 달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 10월 달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달이었다면 11월은 우리들에게 성장을 선물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베트남어 실력, 영어 실력, 베트남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고민을 풀어가는 능력, 엄청난 근육들과 자전거 실력, 심지어 합기도 실력과 뜨개질 실력까지... 정말 많은 성장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장이기에 더 의미 있는 베트남 팀의 성장이야기,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11월달 라온아띠는요?

11월달은 지금까지 어느 달보다도 역동적인 달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학생들과 함께한 문화교류파티를 진행하였고, 흥안유치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메콩델타 워크캠프로 출발! 정말 역동적인 활동들 속에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KB 국민은행

RaonAtti



베트남에서의 11월

MON	TUE	WED	TUR	FRI	SAT	SUN
1	2	3	4	5	6	7
<div style="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동나이 유치원 활동 </div>						
	일본 JAFS Cultural Night					
8	9	10	11	12	13	14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RAONATTI </div>						KOREAN CULTURE SHOW
15	16	17	18	19	20	21
				스승의 날 행사		
22	23	24	25	26	27	28
<div style="background-color: #c8e6c9;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ORK CAMP </div>						
29	30					
여행>>>> 구찌 터널	 DAY-OFF					

홍안에서 보낸 11월은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
다. 베트남어 실력뿐만 아니라 더러움에 대한 두려움, 활동
현장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바꿔버린 홍안에서의 성장스토
리, 들어보시죠.

성장포인트 1. 홍안유치원



11월 달은 홍안에 온지 어
느덧 3주째가 접어드는 달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 서투른
베트남어와 몸에 익지 않은
일들, 매일같이 왕복 4시간
정도를 타야 하는 버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투른 베트남어
때문인지 아이들은 도무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아이들에게 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이
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

움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타야 하는 버스와 목을 아프게 하는
매연들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팀원들이 자
주 아프기도 하고 우울한 날들이 있기도 했었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베트남 말을 잘
못해서 아이를 위로해주지 못했을 때
가장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 정도에 지치고 힘들어할
베트남 팀이 아니겠지요? 친절하신
유치원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들 나
누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베트남
어가 하나 둘 쑥쑥 늘어났습니다. 유
치원의 많은 일들도 금새 몸에 익어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 시간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닌 공부를
하거나 팀원들끼리 서로의 고민을 공
유하는 시간,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몸소 느낄 수 있
는 또 하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안내원들과 운전기사, 구걸하는 소녀
와 보따리상인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내가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처음의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우리 베트남 팀 단원들의 활약은 날로 늘어났답니다. 아이들이 흘리는 콧물과 침이 조금은 더럽게 느껴졌던 아띠도¹, 아이들의 토와 아이들의 똥이 두려웠던 아띠도, 이제는 사랑스럽게 콧물을, 침을 닦아줍니다. 똥도, 토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웃으면 아이들도 웃어요.
마치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유대가 생겼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우리를 선생님으로 인정해주지 않던 아이들도 하나, 둘 마음을 열고 이제는 정말 선생님처럼 우리를 대해준답니다. 이제는 유치원 청소도, 아이들 밥 먹이는 일, 빨래를 하거나 밥을 퍼주는 일도 하나 둘 익숙해졌답니다.

"이제까지 수동적인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선생님처럼 아이들
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일이 몸에 익어가면 갈수록 유치원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늘어만 갑니다. 노래도 가르쳐주고 싶고, 재미있는 놀이도 가르쳐주고 싶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보는 것 만으로도
즐거워요."

¹ '아띠'는 라온아띠의 줄임말입니다.

스승의 날



베트남에도 스승의 날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창피하게도 우리 베트남팀원들도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바로 11월 20일이 베트남의 스승의 날이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은사님들을 찾아 뵙고 선물도 드린답니다. 우리 아띠들도 유치원 선. 생. 님. 으로서 행사에 참여했습니 다.

홍안에서 보조교사활동을 하던 우리 베트남 팀은 베트남 스승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11월 20일이 베트남의 스승의 날이지만, 그보다 하루 앞선 19일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전부터 유치원은 행사준비로 바빴습니다. 점심때 점심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거기다가 정말 소중한 낮잠 시간을 없애가면서 행사장식을 준비했고,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율동과 연극 등을 연습시켰답니다. 함께 준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아띠들과 선생님들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스승의 날이지만 스승의 날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드디어 당일,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큰 행사여서 전날부터 긴장이 되었답니다. 행사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 아띠는 분주하게 공연하는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다른 아띠들은 공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의 귀엽고 감쪽한 공연이 모두 끝나고 그렇게 행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선물을 주었는데, 선생님으로서 선물을 받은 게 태어나서 처음인데다가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로 생각해주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선생님들끼리 파티가 있었습니 다. 일찍 집에 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 일찍부터 파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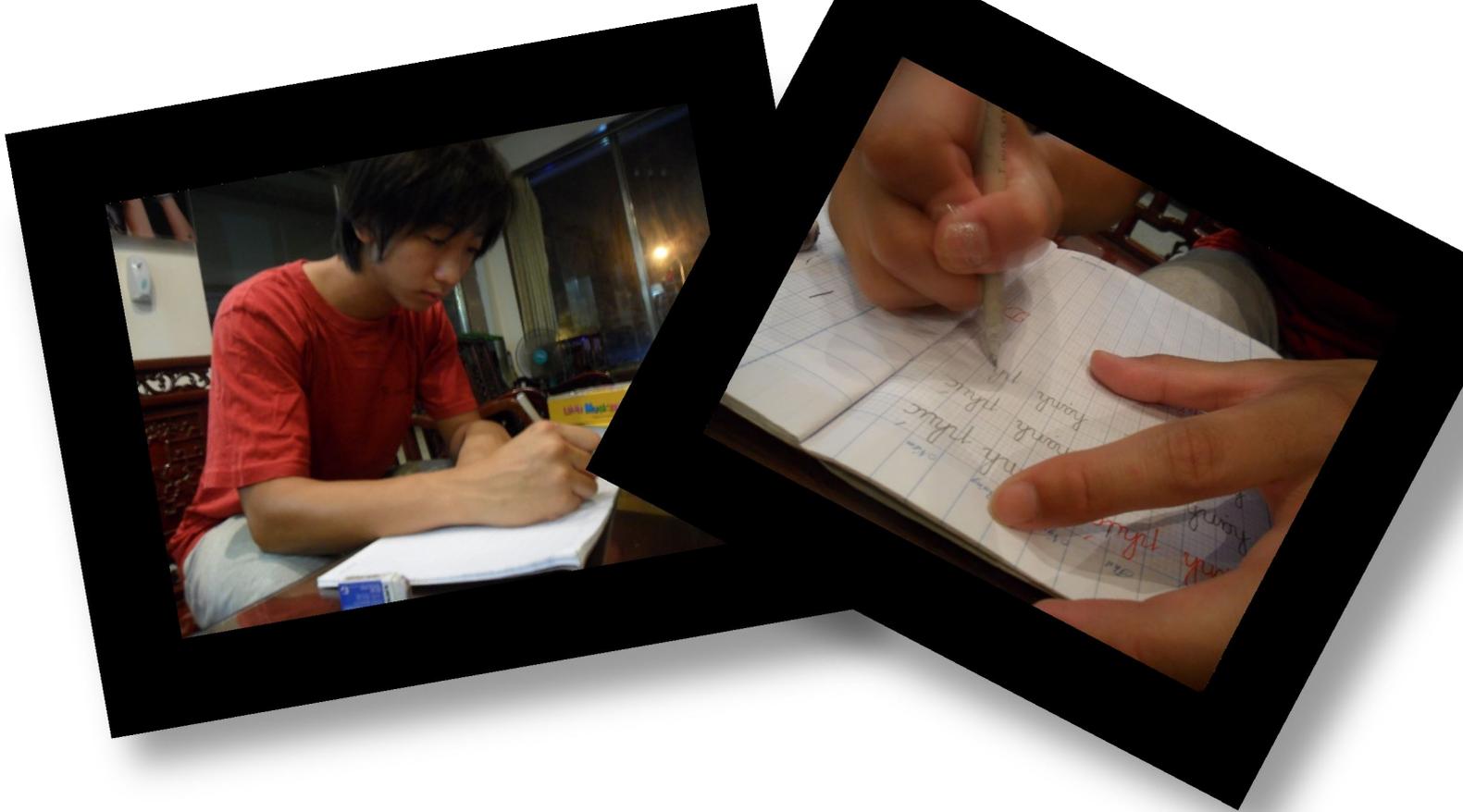


사해서 아띠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답니다. 그리고 아띠의 생일을 잊지 않고
깜짝 파티를 열어주셔서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생님인 유치원선
생님들 덕분에 스승의 날의 의미를 더욱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훈이의 성장일기



베트남어를 처음배우면서 아띠들이 당황했던 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필기체입니다. 베트남어 문자는 영어 문자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기체를 씁니다. 하지만 필기체가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베트남어 문자는 낯설지만 한 글자 씁니다. 필기체를 쓸 줄 모르니 유치원아이들의 글씨연습도 도와주지 못하고 베트남 사람들과 필담을 나누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필기체 연습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처음 써보는 글씨체라 그림 그리듯 글씨를 쓰던 게 어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아이들 글씨연습을 도와주고 게다가 글씨연습을 시키는 숙제도 제가 직접 써드립니다. 가끔 글씨가 엉망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만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성장포인트 2. 한국-베트남 문화교류행사

서로의 문화를 교류한다는 것만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이 행사를 위해 우리 팀은 한 달여 전부터 춤 연습과 발표 준비, 퀴즈 준비, 요리메뉴 정하기, 장식 꾸미기 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요리는 김밥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역인턴쉽부터 쌓아왔던 우리의 요리실력이 드디어 빛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베트남에 와서 만든 2번째 김밥인 지라 우리 아띠들은 손조롭게 김밥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춤은 노바디, Culture Night에서 여자아띠들이 이미 몇 번 선보인 적이 있었지만 남자아띠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춤에 자신이 없던 남자 아띠들도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 up! 춤 실력 up! 발표준비를 하면서는 한국을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20년 넘게 살아온 아띠들이 한국다운 게 뭔가 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고민해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한국다운 건가요? 그 고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만반에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11월 14일이 다가왔습니다. 70여명의 베트남 대학생이 참여한 이 행사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곳이 베트남 대학생 영어 동아리인지라 모든 행사가 영어로 진행되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외국인들과 만나게 되고 문화교류 행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YMCA에서 진행하는 Culture Night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문화교류에 대한 열망과 베트남 친구들을 더 만나고 싶었던 우리 베트남 팀은 YMCA 스텝 TOAN의 제안으로 11월 14일에 한국 □ 베트남 문화교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그리고 그 만남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많은 느낌과 점들을 남긴 행사였습니다. 베트남 팀은 또 어떤 성장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몇 아띠들에게 이 점이 참으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서로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인데. 지금까지 배운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위한 영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웠던 것은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반해, 우리 아띠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베트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끔 베트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이 행사에서도 어느 청년이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대답을 제대로 해 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앎과 이해가 없이 평화는 저절로 찾아 올 수 있을까요?"



은빈이의 성장일기

이번 11월을 보내면서 예전의 저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11월은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달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팀원들에게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서 몸도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번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기분이 우울하지 않고 또 우울해진다고 해도 제가 이제는 딱 기분 전환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은 우울하지 않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포인트 3. 워크캠프



베트남 남부에 벤째(bên tre province)에 있는 메콩델타 근처로 Work Camp를 다녀왔습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사랑,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돌아온 캠프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랑,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게 되었는지 베트남 팀의 또 다른 성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평소에 살고 있는 호치민city는 베트남에 경제 수도라고 불릴 만큼 많은 변화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흥안유치원이 있는 동나이는 공업지대가 밀집한 지역으로 호치민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벤째는 시골냄새가 묻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메콩강을 생활 터전으로 하는 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고, 길가에는 수많은 코코넛 나무들이 무성하고 높은 빌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곳이 워크캠프 장소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베트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띠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도시에 젖어있던 우리들에게 벤째는 그 신선한 공기만으로도 행복을 주었습니다."

25명여의 싱가포르 고등학생들과 함께 우리 아띠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고, 초등학교의 시멘트 바닥 작업과 담장 재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익힌 베트남어로 싱가포르 친구들과 베트남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었고, 영어수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삽질과 시멘트 작업으로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의 작은 힘들이 학생들에게 행복으로 다가갈 것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늘어가는 근육들을 보면서 남자 아띠들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답니다.



또한 말이 아닌 노동을 통해서 싱가포르 사람들과 베트남 노동자 분들과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듣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힘이 아닐까요? 또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훨씬 편하고 힘이 덜 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의 가치, 같이의 가치."

이번 워크캠프에서는 무엇보다 싱가포르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몰라서 말이 안 통하지만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이가 많다고 성숙하고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소통은 언어와 언어의 대화일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과 마음의 대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라온아띠에 합격 된 이후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왜 지금이야?”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매우 컸었지만, 지금 그 생각이 어떻게 깨어졌고,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번 달 초, 정확히 11월 2일에 JAFS(Japan Asia Association and Asian Friendship Society)라는, 아시아 연대를 위하여 분주히 일하는 또 다른 기관에서 10명의 손님이 베트남 팀이 현재 일하고 있는 홍안 유치원을 방문해주셨다. 일본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중년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모습을 보여서 적지 않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 분들의 등장에 이어서, 나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봉사자들의 자세였다. 우선, 종이 접기로 장난감 만드는 방법을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일본에서부터 준비하면서 노력하신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학용품 같은 선물을 주고 마는 방법도 있겠지만, 손수 함께 만든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두 번 째로는, 아이들의 체조시간에 가만히 서 있지 않고 함께 체조를 따라 하고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서슴없이 옆 돌리기 시범을 보여주시는 적극적인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옆 돌리기 시범을 보여주신 분은 60세의 여성분이셨다. 일을 하던 곳에서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성장하여 독립을 하게 되면, “늙음” 라는 수식어가 따라 올 수 밖에 없지만, 여전히 낮아지려는 자세와 누구보다도 넘치는 열정을 보여주신 그 봉사자들 분에게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 일본 봉사자들 분 중에서 한 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우리 아직 젊어요”

12월 달 목표



나연: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고, 1월 달에는 새로운 현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니까 한 해를 잘 정리 할 겁니다.

정진: 새로운 사람 30명을 만날 겁니다.



하나: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 베트남 친구들 만날 겁니다.



은빈: 지금 하고 있는 영어공부 책을 마무리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베트남어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번 달은 우울하고 에너지 없고 정체가였는데 이번 달은 아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2011년 마무리인 만큼 마무리 잘하고 싶고 2011년을 더 잘 보내고 싶습니다. 휴안유치원 활동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하루하루 특별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주말에는 베트남 학생들 만나는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정훈: 베트남어 공부 열심히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베트남사람들과 유창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휴안에서 남는 기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할 거구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찾아가볼 생각입니다.